

'빤들이'부터 '나원참'까지... 광주일보 만화·만평 61년



지난 1954년 '반들이'(천백원)를 시작으로 독자들을 웃기고, 울렸던 광주일보 만화·만평이 '나원참'(김종두)의 미감과 함께 막을 내린다. 광주일보 시사만화는 권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로 통해 독자들의 막힌 가슴을 풀어줬고, 호남인의 슬픔을 달래줬다. 반들이, 너구리, 고구마, 나원참 등 한국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광주일보 시사만화를 모았다.

굿바이, 세상을 울리고 웃긴 光日 만화·만평

매일 아침 독자들과 만나왔던 광주일보 만화 주인공 '나원참'이 작별 인사를 보냈다. 1983년 7월 2일 첫화를 시작해 2013년 12월 6일 마지막 9033화까지, 30년간 '나원참'은 독자들과 회로애력을 함께 해왔다. 9033화는 한국 신문 4컷 만화 역사상 단일 신문에서 단일 캐릭터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나원참'의 뇌작으로 60여년 광주일보(옛 전남일보 포함) 만화 역사도 막을 내렸다. 1컷 만평은 1952년 3월 1일 처음 등장했고, 사회면 4컷 만화는 1954년 첫 선을 보였다.

신문 만화는 오랫동안 지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응축된 단어와 그림, 풍자와 해학으로 시대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만화는 꽤 막힌 현실에서 독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인기를 모았었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대부분의 신문에서 4컷 만화가 사라졌고, 광주일보 만화 역시 어렵게 막을 내리게 됐다.

지금까지 광주일보 지면에는 12명의 작가가 탄생시킨 17명의 캐릭터가 거쳐갔다. 첫번째 인물은 1954년 첫 등장한 어리숙한 10대 주인공 '반들이'(천백원). 이어 임병성씨는 '미쓰장마', '건다리행장기'를 집필했고 1959년 시작된 '우주시대'는 1966년 1월까지 연재되었으며 1959년 시작된 '나원참'은 30년 동안 7개 정권을 지나면서 겪은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다. 칭찬 보다는 질책이 강한 게

'미나리여사'는 7년 9개월간 독자들을 만났으며 정운경의 '세상한 선생', 김성인의 '자라군' 등도 인기 캐릭터였다. 운명운씨의 경우 첫 캐릭터였던 '오기로'가 이름으로 문제가 있다는 보안사의 외압으로 '오톡이 선생'으로 이름을 바꿔 연재하기도 했다.

만평은 1952년 창간 20여일만인 3월 1일 처음 독자들을 찾아갔다. 부정기적으로 실리던 만평은 1958년 9월 임병성씨가 '전일만평'이라 이름으로 정례화했고, 서양화가는 이를 통해 정례화했다.

'나원참'이 가장 즐거웠던 때는

지난 30년간 본보 장식한 '나원참' 6일자로 마감

펜으로 그린 시대정신... 국내 단일 캐릭터 최장

강연군 화백도 만평을 접집했다.

광주일보 만화 캐릭터 중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는 단연 '나원참'이다. 광주일보 최초의 공모를 통해 채용된 김종두(55) 화백이 만들어낸 캐릭터 '나원참'은 시사만화가를 오랫동안 끌었던 김씨가 늘 마음 속에 품고 있어 캐릭터였다. 기가 막힌 일 많고 때론 허탈하기도 한 세상에 대해 한번쯤 발언하고, 억눌렸던 가슴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40대 소시민을 상징하는 '나원참'에는 30년 동안 7개 정권을 지나면서 겪은 시대의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다. 칭찬 보다는 질책이 강한 게

언제였을까. 김화백은 6·10 항쟁 때를 꼽았다. 전남도청, 서현교회 등에서 최루탄을 뒤집어쓰고 행진의 현장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완성해 간 만화는 독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격려전화를 받았다. 매일 매일 성적 표를 받아드는 만화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40대 '나원참'은 처음 만들어낸 게 스물여섯이었습니다. 나원참은 그대로 40대 인데 저만 나이를 훌쩍 먹었네요. 정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좋은 세상을 만나서 정치 풍자 만화가 아닌, 생활 만화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워요. 명랑만화나 생활만화도



지난 1983년 7월 2일부터 광주일보 시사만화 '나원참'을 연재했던 김종두 화백이 지난 5일 마지막 9033화를 그리고 있다. 김 화백은 40대 소시민 '나원참'을 통해 격변의 한국 정치사와 서민들의 애환을 만화로 풀어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잘 하거든요.(웃음)"

마지막 인사를 나눈 김화백은 "죽을 것처럼 아이디어를 짜내 그림을 그리지만 신문을 받아들면 왜 그리 짜잔해 보이던지 매일 스트레

스의 연속이었다"며 "하지만 '나원참'을 통해 30년간 독자들과 만나 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말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 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 가능!
- 특례보증 / 햄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

도대체 스피치 말을
어떻게 잘 할수 있을까?

http://www.kleader.kr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어머니 스피치 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취업을 맞춤 지원하는
면접 준비 실전과정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스피치 리더쉽 과정

명강사 육성과정
강의 스킬을 배워서 강사활동을 하실 분

강사 파견 업무
각 분야별 명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K.L.E.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062) 222-2255 / HP. 010-9441-7000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2013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금융커넥트 개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2013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금융커넥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특구 내 활용 가능한 기술금융 정보 제공 및 기술금융 수요자와 공급자간 1:1 일차형 상담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3년 광주연구개발특구 기술금융커넥트
- 일 시 : 13.12.13(금), 15:00~20:00
- 장 소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대세미나실
- 주 최 : 미래창조과학부
- 주 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후 원 : 광주테크노파크/전남테크노파크/전남대학교
- 참가대상 : 광주·전남 지역 기술금융 관심기업
임직원 및 예비창업자 등

○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13년 11월 22일 ~ 12월 12일 까지 접수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3 광주TP
본동 416호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김춘광 전임(cckim@impolis.or.kr, 062) 576-9306)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1:1 상담 신청 희망기업에 한함)
- 참 가 비 : 무료

○ 프로그램 구성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20	접 수	
15:20 ~ 15:30	한 영사	특구진흥재단
15:30 ~ 16:00	광주엔젤메칭먼트소개 및 유치전략	01증정 (광주테크노파크부정)
16:00 ~ 16:30	특구브드 투자전략 및 운영방향	서하수 (대상업체부자 대표이사)
16:30 ~ 17:00	2011MVP-KFC 호남투자조합 투자 프로세스	(MVP항업부자 부사장)
17:00 ~ 17:30	연구개발특구 기술금융 연계형 기업상장 지원 전략	김종영 (산업은행부부장)
17:30 ~ 18:30	식사 및 네트워킹	
18:30 ~ 20:00	투자 파트너링(1:1 상담회)을 통한 네트워킹	기술금융네트워크

○ 투자파트너링 (1:1 상담)

- (업체선정) 신청접수 후 기술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금융 네트워크 회의를 통하여 선발 및 매칭 예정
- (행사당일) 업체당 약 20분 상담 예정

2013. 12. 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민주화의 상징' 넬슨 만델라

인류의 큰 별 지다

국제사회 애도의 물결

15일 고향 쿠누서 국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 역사의 살아있는 신화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인 반열의 넬슨 만델라(사진) 전 대통령이 5일 밤(현지시간) 95세를 일기로 태계했다.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저녁 8시50분께 요하네스버그의 자택에서 자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숨을 거뒀다. 장례식은 오는 15일 고향 쿠누에서 국장으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만델라는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최근 다시 재발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1918년 남아공 동남부 읍베조에서 마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흑백차별)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현 집권당)를 이끌며 투쟁하다 투옥돼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국내의 저항과 국제사회의 압력에 더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남아공 백인정권은 1990년 만델라를 석방하고 ANC도 합법 조직으로 인정했다. 만델라는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인 F. W. 데 클레르크 대통령과 지난 1993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듬해인 1994년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첫 흑인 대통령이 됐고,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문회에서 잘못을 고백한 백인을

사면하는 등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용서와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민주화와 인권의 전 세계적 상징이 된 만델라의 죽음은 남아공은 물론 전세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은 고인을 "정의로운 거인"으로 표현하면서 "그는 인류의 존엄과 평등, 자유를 위한 그의 투쟁은 세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우리는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용기 있는 유대인이며 매우 선한 인물 한 명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영결식과 장례식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수반, 반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추모행사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8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남아공으로 떠났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그의 송고한 자유와 평화정신이 인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기원한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부진표기자 lucky@kwangju.co.kr